



나무와 숲 그리고 우리

연둣빛 잎사귀들로 가득한 계절입니다.
나무와 숲과 조우하기 딱 좋은 계절이지요.
산림청은 우리의 삶에서 숲이 더욱 가까이 있도록 건강하고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forest.go.kr



MAGAZINE 수 포

지리산과
참나무

VOL. 06
MAY
JUNE
2015

5/6



CONTENTS



06

특집 | 지리산과 참나무

- 04 **테마**
참 좋은 나무 참나무
참나무에 대한 단상
- 06 **여행**
마을 지나 고개 넘어 산길 돌아
저벅저벅 그저 걷고 있는 거지
경남 산청 지리산 둘레길 8구간
- 12 **역사**
굴참나무 한 그루를 심고 나라의 행운을 빌다
강감찬과 굴참나무
- 16 **문화**
참나무는 무엇이 될까?
굴피집과 도토리묵
- 18 **인포그래픽**
변화무쌍 참나무
참나무 정보
- 20 **체험**
후끈한 숯가마의 열기 뜨거운 삶의 현장
강원 참숯영농조합

26

- 24 **세계의 숲을 만나다**
대만 기래복봉
오지탐험가 김성선
- 26 **산 그리고 사람**
맑고 고운 이어
시가 되어 주세요
시인 박남준
- 30 **비밀의 정원**
신록 속
꽃의 빛을 누리다
산수국과 물레나물
- 32 **어떤 날 숲**
똑똑! 숲에 놀러 왔어요
춘천 용화산 자연휴양림
- 36 **캠핑**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안전 캠핑 노하우
안전하게 즐기는 캠핑

36

- 40 **라이프 스타일**
탄탄한 기초 세우기
이상목 빌더의 목조주택 이야기
- 44 **그린테이블**
파란 하늘 아래 나물 예찬
곰취 수육, 명이나물 샌드위치
- 46 **인생학교, 숲**
소년 소녀의 아름다움이여
숲에서 빛나라!
청소년기
- 50 **아트테라피**
당신의 찬란한 빛을 담아보세요
영양 서석지
- 52 **독자 메시지**
독자들의 이야기

44

VOL. 06
MAY / JUNE
2015

MAGAZINE **숲**

발행일 2015년 06월 10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기획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김병규, 엄지민, 이대영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간행물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하려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표지설명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과를 통틀어 지칭하는 '참나무'. 5+6월 <magazine 숲>은
우리 산에서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참나무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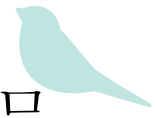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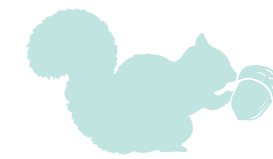
참 좋은 나무



참나무

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꽃 피우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소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뱀나무 등등.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친숙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혹시,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본 경험이 있나요? 나무에 매달려 있던 조그만 도토리가 땅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은요? 귀여운 다람쥐가 도토리를 양볼 가득 넣고 잼싸게 뛰어가는 장면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통틀어 '참나무'라 부릅니다. 신갈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를 참나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참'이란 '정말, 참으로'의 뜻으로 '진짜 나무', '정말 좋은 나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만큼 참나무는 사람에게, 동물에게 아낌없이 주는 유용한 나무입니다.



나무줄기, 껍질, 잎, 열매, 뿌리 등 모든 것이 각각의 쓰임에 따라 그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양식이 되는 열매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민족은 도토리를 주워 목을 썬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참나무의 질긴 껍질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의 재료로 사용됐죠. 참나무의 잎은 향균 효과가 뛰어나 떡을 찌 때 사용하면 잘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노인에게는 지팡이가 되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 되어준 참나무. 어떤가요? 사람에게, 동물에게 아낌없이 전부 내어주는 참나무는 그야말로 참 좋은 나무가 아닌가요?

마을 지나 고개 넘어 산길 돌아 저벅저벅 그저 걷고 있는 거지



경남 산청 지리산 둘레길 8구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을 여행하는 방법이자, 마음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걷는 방법은 따로 없다. 걷는 내내 찾아오는 근육통을 온몸으로 맞이할 것,
이미와 등줄기로 흐르는 구슬땀을 참되게 여길 것, 나를 잠식하는 잡생각에 풍덩 빠져볼 것,
분명 눈앞은 아득하게 흐려져 오고, 떨어져오는 두 무릎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아파올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걷는다. 지리산을 걸었다.



산 높고 물 맑은 산청(山淸)

산청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눈치챘을 것이다. 산청은 이름 그대로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고장이다. 그 진가를 맛보기 위해서는 산청을 지나서 지리산 둘레길을 걸어보면 된다. 특히 지리산 둘레길 5개 구간, 5~9구간이 산청을 지난다. 이 중 예쁜 참나무 숲길과 청정한 계곡이 있는 8구간을 걸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짙은 신록이 눈부셨다. 지리산 둘레길 8구간의 여정은 '운리마을'에서 시작한다. 운리마을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 이정표가 알려주는 곳으로 따라 걸기만 하면 된다. 둘레길의 시작이 마을이다 보니 소소한 풍경이 비춰진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쉬고 있는 할머니들의 수다, 꼬불꼬불 이어진 오르막길을 뒷짐 지고 걷고 있는 할머니들의 산책, 텃밭에 파 상추를 가꾸는 할아버지, 쪼뼛이 세워둔 참나무에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 거기에 넓게 펼쳐진 들판까지. 정겨운 풍경들의 연속이다. 마을 초입에서 있는 당산나무와 정자는 여행자들에게 넉넉한 심터를 내준다. 그렇게 지리산 둘레길 8구간이 시작됐다.

신록으로 향하는 길, 쉬엄쉬엄 걷는다

마을을 걸을 때까지는 몰랐었다. 이 길이 고되고 험난한 길일 것이라

고는. 운리마을까지 바래다준 택시기사 아저씨는 말했다. "8구간이면 쉽게 걸을 수 있죠. 백운계곡까지는 금방 올라갑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여러 번 이 구간을 걷고 걸었을 지도 모른다. 익숙한 길이니 어찌면 둘레길이기보다 쉬운 산책로였을 지도 모른다. 속았다는 생각 대신, 걷기 운동을 게으르게 했던 탓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걸었다. 그래도 길 곳곳에 피어난 짙레꽃이 힘든 여정을 위로해줬다. 걷다보면 코끝으로 짙레꽃의 은은한 향이 스며들어왔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둘러보면 짙레꽃이 길가 곳곳에 숨어 있었다. 둘레길은 마을길, 임도, 숲길이 번갈아가면서 이어진다. 숲길 구간은 제법 길었고, 사위는 한결같이 고즈넉했다. 그렇게 운리마을의 길과 임도를 지나자 원두막 쉼터와 화장실이 때맞춰 마중을 나온다. 잠깐 숨을 돌려본다. 원두막 아래 잠시 앉아 걸어왔던 길과 운리마을을 바라봤다. 시원하게 펼쳐진 지리산 능선과 바둑판처럼 자리 잡은 들판, 거기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집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말하는 것 같았다. 원두막에서 호흡을 고르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숲길로 이어졌다. 조금은 가파른 경사가 이어지니, 숲길이 조금 야속하다 느껴졌다. 들고 있던 짐은 왜 그리도 무겁던지. 그렇게 거친 숨을 내쉬며,

들고 있던 짐을 끄꿍대며 짙어지고 걸은 지 30여 분. 참나무 군락지가 곧 나타날 것을 암시하듯 좁고 가파른 계단길이 나왔다. 이 길 끝에는 분명 울창한 참나무 숲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 계단을 오르고 또 다시 이어지는 숲길을 걷다보니, 마침내 참나무 군락지에 당도했다. 군락지의 들머리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고루 섞여 있어 잠시 '참나무 군락지가 맞나?'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걷다보면 진정한 참나무 군락지라 할 만한 곳이 등장한다. 20m에 달하는 참나무가 끝없이 펼쳐지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종류도 다양하다.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가 고루 섞인 참나무 군락지였다. 참나무의 빛깔이 내뿜는 신록은 말처럼 그냥 푸른빛이 아닌, 새롭고 싱그러운 초록이었다.

운리마을

운리(雲里)마을은 지리산의 험준한 산에 파묻힌 '구름에 덮인 마을'이라는 뜻이다. 여러 산지로 에워싸인 산간분지라 구름 걷힐 날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1. 운리마을에서 시작하는 둘레길 8구간. 30여 분간 마을을 걷다보면 소소한 풍경들이 펼쳐진다. 2. 이처럼 많은 참나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그야말로 이곳은 초록이 뿜어내는 빛이요, 아름다움이었다. 3. 마을에서 숲길로 이어지는 길에 표고목을 발견했다. 참나무에 심어놓은 표고종균에서 표고버섯이 올라와 있었다.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참나무를 타고 술술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로 등으로 흐르던 땀을 식혀줬다. 숲은 바람소리, 새소리, 타박타박 걷는 발걸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마음을 탐구할 수 있는 길임이 분명했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 것도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이곳을 찾을 때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걸음을 걸어보라 말하고 싶다. 마을을 지나, 고개를 넘어, 굽이치는 산을 타다 보면 오롯이 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꼬불꼬불한 숲길은 15여 분간 지속됐다. 아름다운 참나무 숲길의 정수였다.

길을 묻다, 길을 걷다

참나무 군락지를 지나고 한참을 걸었다. 걷다보니 어디선가 시원한 물 소리가 났다. 계속 걷고 있던 터라 시원한 물줄기가 생각나던 때였다. 웅석봉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백운계곡이다.

백운계곡은 윤리마을에서 시작해 참나무 군락지를 지나오면서 흐르던 땀을 한 번에 씻어 줄 장소였다. 침병침병 물장구를 치거나, 땀에



4. 길을 걷다보면 은은한 향기가 코끝으로 들어온다. 8구간 길목에는 유독 찔레꽃이 많이 피어 있었다. 5. 남명 조식이 즐겨 찾았다는 백운계곡, 시원한 물줄기가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기운을 북돋아 줬다. 6. 백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여행객을 만났다. 처음 보는 사이어도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돌레길에서 만나는 소소한 재미.



젖어 있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안성맞춤의 장소. 따라서 계곡을 그저 지나치지 말고 물의 흐름도 살펴보고, 손도 한 번 담가보고, 바위 위에서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좋은 곳이다.

백운계곡은 조선시대 유학자인 남명 조식(1501~1572)이 자주 찾던 곳으로 전해진다. 계곡 곳곳에 놓인 널찍한 바위에 앉아 수려한 경치를 바라보며, 풍류에 젖기도 하고 시문을 짓기도 했을 것이다. "푸르른 산에 올라보니 온 세상이 쪽빛과 같은데 사람의 욕심은 그칠 줄을 몰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세상사를 탐한다."라는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백운계곡은 지리산이 품고 있는 수많은 계곡 중에서 물이 가장 맑기로 알려졌다. 시원한 물줄기가 커다란 바위를 가로지르며 흐른다. 작은 웅덩이에 손을 담그니 물속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걷고 걸으며 생겨났던 갈증이 한 순간에 풀리는 순간이었다. 너럭바위에 앉아 잠시나마 흐르는 물소리를,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풍경을 바라봤다. 자연 안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아늑함이 밀려왔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길이 마침내 끝이 났다. 걸던 길을 되새겨 보면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비치는 길을 걸을 때는 땀줄기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찾아왔고, 5초에 한 번씩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낭만이 있는 걸음은 아니었지만 원초적인 기쁨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존재하는 걸음이었다. 굳이 이유를 찾지 않고 걷는 걸음. 그리고 중요한 건 나, 이렇게 아직도 걷고 있다는 것. ☺

Information

함께 마주하는 풍경

백운계곡

웅석봉으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이 모여 자연이 빚은 기암괴석들 사이를 흐르고 폭포를 만든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남명 조식이 지리산의 절경으로 손꼽았던 백운계곡이다. 계곡에는 남명이 남긴 백운동 웅문동천(龍門洞天), 영남 제일천석(嶺南第一泉石) 등의 문구가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새겨져 있다.

지리산 돌레길 제8구간 : 윤리마을~백운계곡(6.2km)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윤리마을에서 시작하는 지리산 돌레길이다. 백운계곡까지는 6.2km의 지리산 돌레길. 임도와 숲길을 번갈아가면서 걷다보면 참나무 숲과 백운계곡을 만날 수 있다. 그늘이 부족한 길이니 햇빛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하자. 8구간을 걷다보면 어느덧 나의 거친 숲과 자연이 하나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주소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윤리 515
- 안내 : 성심원 안내 센터 055-974-0898, 산청 센터 070-4227-6921



① 윤리마을 → ② 참나무 군락지

윤리마을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돌레길은 시멘트 길이다. 마을을 떠나 계속 오르다 보면 비포장 임도가 나오고, 조금 더 오르다 보면 화장실과 쉼터가 나온다. 그곳으로부터 20여 분간 오르다 보면 왼쪽으로 난 계단이 보일 것이다. 참나무 군락지 방향이다. 오르는 길 곳곳에 친절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으니 길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은 가파른 임도도 펼쳐지니 쉬엄쉬엄 걸어 올라가도록 하자.

② 참나무 군락지 → ③ 백운계곡

계단을 오르고 난 뒤 숲길을 조금 걷다보면 8구간의 백미인 참나무 군락지가 나온다. 이 구간은 오르막도 내리막도 별로 없어 걷기 편한 길이다. 이 길을 따라 30여 분간 걷다보면 백운계곡이다. 백운계곡을 맞이하기 전 조금 더 일찍 작은 계곡이 하나 나오지만, 백운계곡이 아니므로 조금 더 걷도록 한다.

③ 백운계곡 → ④ 백운계곡 주차장

나무다리가 놓인 계곡을 건너면 오른쪽으로 백운마을로 가는 등산로가 있고, 왼쪽으로 백운계곡의 시작점인 백운계곡 주차장이 나온다. 백운계곡 나무다리 앞에는 "물이 넘칠 경우 돌아가세요"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많은 비가 내린 후에는 계곡이 불어 위험할 수 있으니 나무 다리를 건너지 않도록 한다.

굴참나무 한 그루를 심고 나라의 행운을 빌다

신림동 굴참나무

거란 군을 격퇴하고 고려를 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진 강감찬 장군!
천하 영웅도 초조와 불안이 엄습할 수 밖에 없다.
그는 고향땅을 찾아 굴참나무 한 그루를 심고,
당신의 무운을 점치고 나라의 행운을 빌었다.

글 | 박상진(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일러스트 | 정윤미



<고려사> 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어떤 사신이 한밤중에 시흥군으로
들어오다가 큰 별이 집 마당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니
그 집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가 바로 을지문덕 · 이순신 장군과 함께
우리 역사상 3대 위인 중 한 분이라는
강감찬 장군이다.

낙성대(落星堡)와 강감찬 장군의 흔적

지금으로부터 1003년 전, 고려 현종 9년(1018)의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
가 본다. 거란의 소배압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한다. 마침
강감찬 장군이 서경유수(西京留守)로 있을 때다. 그는 서북면행영도통
사(西北面行營都統使)가 되어 군사 20만 8천 명을 거느리고 출전을 하
게 된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강감
찬 장군은 잠시 짬을 내어 고향집으로 되돌아온다. 오늘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신림동 일대는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사> 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어떤 사신(使臣)이 한밤
중에 시흥군으로 들어오다가 큰 별이 집 마당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
람을 보내어 찾아보니 그 집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
가 바로 을지문덕 · 이순신 장군과 함께 우리 역사상 3대 위인 중 한 분
이라는 강감찬 장군이다. 오늘날 '낙성대(落星堡)'란 이름도 이런 이야
기에서 유래했다.

장군은 집안의 사당에다 제사를 올리고 전쟁터로 나가면서 그냥 가지 않
았다.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두고 당신의 무운을 점쳤다고 한다. 봄
이 되어 지팡이에서 잎이 돋고 살아나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모두의 바람대로 굴참나무는 싹이 틔으며, 의주에서 적을 무찔렀고 회군
하는 적을 귀주에서 또 크게 격파했다. 개선할 때 왕이 직접 영흥역까지
나가 영접하는 파격적인 대접을 받기도 했다. 강감찬 장군의 승리는 귀주
대첩(龜州大捷)으로 우리 역사에 자랑스러운 승전보로 남게 됐다. '강감
찬의 지팡이는 잘 자라 오늘날 천연기념물 271호 굴참나무가 된다. 거란
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조국 고려를 구한 강감찬 장군의 늠름한 기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서 깊은 나무다.

역사와 전설의 현장에서 만나는 굴참나무

그러나 알량한 과학 상식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은 역사의 현장, 전설의
현장을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다.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다. 우선 굴참나무가 지팡이로 가능한가이다. 비중이
0.7~8이나 되는 단단한 굴참나무는 사람에게 너무 무거워 지팡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강감찬 장군은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는 장군이니 굴참
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힘이 셧 터이고 위험한 순간에
는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지팡이를 꽂아서 살아났다는 고목나무는
경기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전남 순천 송광사 천자암 향나무, 경북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등 전국에 수십 건이 있다. 흔히 알려진 삼목전설인
테 금방 벤 버드나무 이외에 지팡이를 꽂아 싹이 날 가능성이 있는 나무
는 거의 없다. 이런 일은 참과 거짓으로 따지기 보다는 전설이 생김의 의미
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새싹이 돋는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 좋
은 일이 생긴다는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다.

아울러서 이 굴참나무의 나이가 전설대로라면 1천년이 넘어야 한다. 그러
나 실제 나이는 적게는 150년, 많이 잡아도 250년 정도이다. 고목나무 나
이는 생물학적인 나이와 민속학적인 나이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생물
학적인 나이가 실제 나이지만 흔히 속이 썩어버리는 고목나무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1년에 한 개씩 생기는 나이테의 폭
이 자란 환경에 따라 너무 들쭉날쭉하므로 나무의 굵기로 하는 나이 추정
은 오차가 극심하기 마련이다. 민속학적인 나이는 전설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나이다.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아무것
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허무맹랑한 낭설만은 아니다. 전설은 과장과
각색은 있어도 조그마한 내력이라도 바탕을 두고 만들어 진다.



이곳 강감찬 굴참나무도 전장에 출진하는 강감찬 장군의 바람을 담아 이야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민속학적인 나이는 '1천년'이 맞다. 굳이 생물학적인 나이로 따져보고 싶다면 강감찬 장군의 그때 그 나무의 손자나 증손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은 왜 그 많은 나무 중에 하필 굴참나무가 선택되었는가이다. 3백여 년 뒤의 기록이지만 역사책 <고려사> 충숙왕 관련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충숙왕 16년(1329) 정월이다. 왕은 지난해 8월부터 황해도 평주의 천신산 아래 가옥(假屋)을 짓고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임금 노릇은 팽개치고 놀이에 열중한 것이다. 한겨울 지붕에서 물이 새자 부리는 사람들에게 “지붕을 이는 데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본다.

사람들이 “굴참나무 껍질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했다. 곧장 백성들을 동원하니 겨울의 굴참나무 껍질 벗기기에 모두 고통스러워했다. 굴참나무 껍질에는 3~4cm나 되는 두꺼운 코르크가 발달한다. 자연이 준 방수물질이며 뛰어난 보온성을 가졌으니 지붕 이는 데는 따라갈 재료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골에 지어진 굴피집은 굴참나무 껍질을 벗겨서 만든다. 뿐만 아니라 다른 참나무 종류와 마찬가지로 굴참나무는 흉년이 들면 풍년 때보다 더 많은 도토리가 매달려 가난한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고마운 나무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려때 굴참나무는 쓰임이 많은 나무였다.

삶의 터전이 조금만 더 확보되었더라면...

강감찬 굴참나무는 서울 신림동 난곡 초등학교 위쪽 비탈에 있는 2차진 영아파트 앞에 자란다. 건물과 동쪽으로 불과 10여m 남짓 떨어진 주차장 구석에 어쩔수리 터전을 마련했다. 그나마 평지가 아니고 산자락에 조롱박처럼 생긴 곳이며 주변은 주차장이다. 지대가 낮으므로 아래쪽 나뭇가지는 주차장과 높이가 거의 같다. 덕분에 나뭇잎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직격탄을 항상 맞고 있다. 그나마 '조롱박' 지름이래야 16~20m 남짓하여 생육공간으로서도 너무 비좁다. 주위에는 나지막한 보호 담장이 있으나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는 것으로 보아 나무 주변에 사람들이 쉽게 들락거리는 것 같다.

오후가 되면 그린벨트 경계선을 따라 남북 一자로 길게 뻗어있는 아파트 건물에 가려 햇빛 구경도 어렵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중 최악의 조건에 자리한 이 굴참나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삶을 지탱할지 관심을 갖고 찾는 이라면 모두가 걱정스러워 한다.

나무는 두 아들이 채 안 되는 가슴높이 둘레 2.9m 남짓하고 뿌리목 둘레도 3.2m 정도이다. 키 16m, 가지 펼침 동서 19.5m, 남북 17.0m 정도이나 지대가 낮아 고층 아파트와 비교되어 초라해 보인다. 아파트를 지을 때 무슨 무슨 평가위원, 무슨 무슨 자문위원 회의를 수없이 거쳤을 것이나 나무의 역사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 나무의 나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강감찬이 직접 심은 1천년 된 나무로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목나무의 나이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민속학적인 나이가 우선한다. 아파트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떨어져서, 아니 조금만 비켜서서 지었더라면 천년의 역사를 살아서 말하는 '강감찬 굴참나무'의 앞날이 이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오후의 햇살이 긴 그늘을 만들어 굴참나무를 덮어버리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마음은 편치 않다.

한편 '강감찬 향나무'도 있다. 생가 터에는 높이 17m, 가슴높이 둘레 4.2m, 나이 700년에 이르는 향나무가 1987년까지 자라고 있었으나 죽어버렸다. 죽은 나무의 일부 육신은 지금 관악구청 로비에 전시하여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



고목나무의 나이는 민속학적인 나이가 우선한다. 아파트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떨어져서, 아니 조금만 비켜서서 지었더라면 천년의 역사를 살아서 말하는 '강감찬 굴참나무'의 앞날이 이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271호로 지정됐다. 현재 이 굴참나무는 신림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원래의 나무는 죽고 그 후계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나무는 무엇이 될까?



1.

화전민의 보금자리, 굴피집

산을 삶의 터전으로 생활양식과 문화를 뿌리내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화전민(火田民)'이 대표적일 것이다. 화전민은 주어진 환경인 산에 적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왔다. 울창한 산, 거기에 거친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화전민은 많은 방안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산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들 나름의 고유한 집짓기 양식, 바로 '굴피집'이다. 굴피집의 특징은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수피(나무 껍질)를 이용해 지붕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지붕으로 화전민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화전민은 겨울이 길고 유난히 추운 북부 산립 지역에 거주했다. 산이라는 터전에서 살아가기 위해 눈농사보다 밭농사에 비중을 많이 뒀고,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교류는 적었다. 따라서 자급자족의 경제 활동밖에 할 수 없었고 주변에 있는 자연을 활용했다. 참나무는 화전민에게 좋은 연료이자 자원이었다. 특히 참나무는

화력이 좋아 난방을 위한 뿔감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참나무의 숲은 시장에서 곡식과 물물교환을 할 수 있었다. 참나무 중 화전민에게 유용하게 쓰인 나무는 수피가 발달해 굴피집의 지붕을 이을 수 있는 굴참나무였다. 굴피집의 지붕은 수령 20년쯤 된 굴참나무를 밑동부터 수피를 떼어 사용했다. 보통 처서인 음력 7월경(양력 8월 23일)이 수피를 떼어내기 가장 좋은 때인데, 장마철이 지난 시기이므로 수분이 많아 수피를 떼어내도 형성층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잘 떼어진다. 그다음 수피가 돌돌 말리지 않도록 잘 펴서 응달에 4~5일 정도 말리면 지붕 재료가 된다. 굴피집의 수명은 '기와 만년에 굴피 천년'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무척 길다.

참나무는 어떤 한 종류의 나무가 아닌, '참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을 통틀어 칭한다. 특히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참나무라 한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를 비롯해 도토리가 풍성하게 열리는 나무들은 모두 참나무과에 속한다. 종류도 많은 만큼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참나무. 참나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삶을 바라보자.



2.

뽕은맛에 숨겨진 참된 맛, 도토리

참나무에는 도토리가 열린다. 가을 산행을 하다보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작은 열매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참나무는 우리나라 산에 널리 분포한다. 도토리의 크기는 작지만 쓰임새가 많고 독특한 맛의 비밀도 숨겨져 있다. 도토리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으면 맛이 아주 뽕다. 하지만 이 뽕은 열매를 삶아 묵으로 만들면 맛있는 먹을거리가 된다. 참나무 중 도토리묵으로 만들 수 있는 나무는 상수리나무다. 상수리나무의 이름은 '수라상에 올라가는 도토리나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임진왜란 당시, 피란 중이던 선조는 반찬이 없자 상수리나무의 도토리묵으로 만든 묵을 먹었다. 전란이 끝난 후에도 그때 맛을 잊지 못해 계속 수라상에 도토리묵을 올리도록 했다. 그 후부터 도토리나무는 상수리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전분이 풍부한 도토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구황식물(救荒植物)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했다. "들판이 풍년이면 산의 열매는 흉년이요, 들판이 흉년이면 산은 풍년이다."는 옛말이 있다. 강한 햇살로 논밭에 가뭄이 들면 오히려 산에는 열매가 잘 여물어서 생긴 말이다. 우리에게 건강식으로 잘 알려진 도토리지만, 우리 민족의 생명의 젖줄이었음이 분명하다. 참나무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집을 지을 때, 가구를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하고 열매로는 묵을 만들어 먹었다. 다람쥐와 멧돼지에게는 겨울을 준비하는 먹이이기도 한 참나무의 도토리. 아낌없이 주는 참나무는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귀중한 산림의 혜택이다. 가까울수록 지나치기 쉬운 참된 가치의 면목, 우리 곁에 흔히 있는 참나무이지만 참나무의 참된 가치를 느껴보기 바란다. ●

변화무쌍 참나무

참나무의 '참'은 정말로, 참으로의 뜻으로 좋은 나무라는 뜻을 지닌다. 다른 나무가 그러하듯 참나무도 봄에는 연두 빛 신록을, 여름에는 무성한 잎의 그늘을, 가을에는 단풍과 도토리 품성함을 아낌없이 사람에게 주기에 그러하리라. 잎, 열매, 뿌리 등 모든 것을 쓰임에 따라 사람에게 동물에게 주고 있는 참나무의 진면목에 대해 알아보자.

참나무, 이름과 이름 사이



1. 상수리나무
수라상에 올라가는 영광을 안아 상수리나무.



2. 굴참나무
나무의 껍질 골이 깊다 하여 '굴참'이라 부르다 굴피로 바뀌 불리는 굴참나무.



3. 떡갈나무
앞으로 떡을 싸서 찢 이후로 떡갈나무.



4. 신갈나무
짚신 바닥에 깔아 사용하여, '신을 간다'는 뜻의 신갈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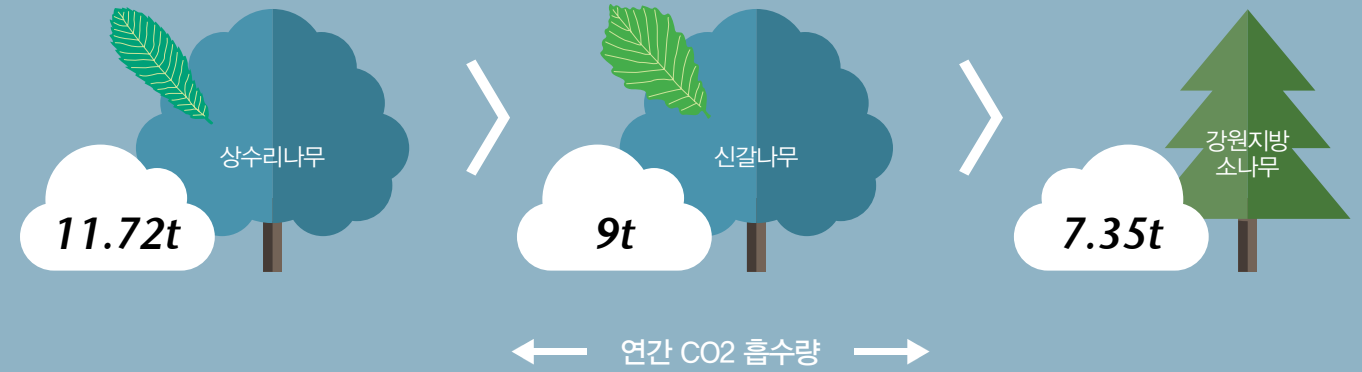


5. 갈참나무
가을에 제일 눈에 잘 띄어 가을 참나무, 갈참나무.



6. 졸참나무
열매가 작아 졸(卒)이라 불리는 졸참나무.

이산화탄소를 가장 잘 흡수하는 참나무



숲의 효능

① 구멍이 많아 흡수력이 좋은 숲



② 가슴과 공기정화를 위한 숲의 양



쓰임새가 다양한 참나무



와인을 담아두는 오크통



코르크 마개



가구



코르크 샌들

후끈한 숯가마의 열기 뜨거운 삶의 현장

강원 참숯영농조합

참나무는 참숯을 만드는 재료로서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참나무로 숯을 만들면 잘 부서지지 않고 오랫동안 타기 때문이다. 후끈후끈한 숯가마의 열기가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숯쟁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한가득 맺히는, 그 뜨거운 삶의 현장을 찾아 갔다.

숯가마가 뿜어내는 묘미

황성군 갑천면 포동리의 작은 골짜기에는 언제나 희뿌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코끝을 자극하는 매캐한 냄새가 신골짜기를 뒤덮는다. 골짜기의 나지막한 산자락에 자리한 숯가마에서 내뿜는 연기와 숯을 굽는 냄새다.

이곳은 아홉 개의 숯가마가 있고, 다섯 명의 숯장이들이 그 숯가마를 하나씩 도맡아 일 년 내내 숯을 구워내는 '강원 참숯영농조합'이다. 까맣게 그을린 숯가마, 군데군데 쌓아 놓은 참나무, 잘 정돈되어 있는 삽, 팽이, 부장대 같은 도구가 연기 속에 얽혀 오묘한 풍경을 자아낸다.

작업자에 따라 참나무를 숯가마에 넣고 빼는 시간이 달라, 새벽녘에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자의 시간에 맞춰 이곳을 찾았다. 숯가마 작업은 잠시

멈춘 상태였지만, 지난 날 데워진 뜨끈뜨끈한 숯가마에서 찜질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어두컴컴한 가마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오로지 찜질만을 위해 집중하고 있었다.

숯가마는 1,700℃에서 달궈진 상태인데다, 숯의 제습 효과로 땀을 흘리고 나와도 찜찜함 없이 아주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남녀불문하고 건강을 위해, 힐링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아이고, 시원하구만” 찜질을 위해 강원도 인근에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60대 남성은 숯가마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다리, 허리, 어깨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효능을 지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숯가마를 여러 번 들락날락 거리며 열기를 쬐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마에 맺은 땀방울이 그의 통증을 씻어주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가마에 참나무 쌓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숯가마에 참나무를 넣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른 키만한 통나무를 거꾸로 세워 꼼꼼하게 빈틈없이 집어넣고 있었다. 참나무를 빈틈없이 세우지 않으면, 타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워 넣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숯가마를 참나무로 채우는 데도 꼬박 하루 반나절이 걸린다.

참나무를 다 집어넣은 후, 황토로 입구를 막는 '앞수리' 작업을 한다. 앞수리 작업은 입구 상단만은 남겨둔 채 막는다. 상단 구멍으로 장작을 밀어 넣고 불을 지피기 위해서다. 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도록 해야 한다. 밑에서부터 타게 되면 타고 있는 참나무가 무너져 내려 숯은 되지 않고 재만 남기 때문이다. 처음 불이 피워진 후, 숨구멍을 막아 불길을 약하게 잠재운 후 천천히 연소시킨다. 그래야만 비로소 좋은 참숯이 완성된다.

가마 입구 뚫기

작업자에 따라 참나무를 숯가마에 넣고 빼는 시간이 달라, 다음날 새벽 일찍 선잠을 털어내고 숯가마터를 다시 찾았다. 열기로 가득찬 숯가마가 내뿜는 화염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기 위해.

이내 곧 숯장이는 숯가마에서 숯을 꺼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작은 트랙터를 이용해 숯가마의 입구를 뚫었다. 닫혀있던 숯가마의 문이 열리자 뜨거운 열기가 퍼져 나왔다. 밀폐된 가마 속에서 고온으로 달궈진 참나무는 흡사 금덩이처럼 반짝였다. 용솨음치며 일렁거리는 화염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이글거리는 화염은 용광로처럼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1. 숯가마에 참나무를 가지런히 세워 놓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이 작업할 수 없는 숯장이의 하루. 경이로웠다. 2. 트랙터를 이용해 숯가마를 뚫으니 이글거리는 화염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3. 숯장이가 숯장대를 이용해 숯을 가마에서 빼고 있다. 4. 참숯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 숯은 탄소덩어리가 아니었다. 열정이고, 노력이며, 뜨거운 삶의 결과였다.



숯장이의 땀이 맺은 결과

숯가마에 참나무를 넣고 꺼내는 작업을 보기 전에는 참숯을 그저 까맣게 탄 나무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기습 효과가 있어 냉장고에 넣어 두면 잡냄새를 잡아주고 숯볼로 삼겹살을 구워내면 꿀맛이라는 점이 내가 알고 있던 참숯의 모든 것. 그러나 참숯을 만드는 과정은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숯가마에 들어가는 참나무는 대략 10톤. 숯가마에 나무를 넣고 입구를 닫아 불을 지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하루 반나절, 숯가마 하나 당 숯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 대략 일주일. 그 고된 과정을 숯장이는 허투루 하지 않고 참고 참아내어 긴 여정 끝에 참숯을 만든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뜨거운 열기 앞에서 땀과 열정을 쏟아내는 숯장이가 만들어내는 그 뜨거운 삶의 현장. '참'으로 빛나는 '참'숯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강원 참숯영농조합

강원도 횡성군에 자리한 강원 참숯영농조합은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참숯가마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 위치 : 강원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631번지
- 전화 : 033-342-4508
- 운영 시간 : 09시~18시(일~금), 토요일은 17시까지
- 입장료 : 7,000원



가마에서 5~6일간 구운 숯 꺼내기

숯장이는 가마 입구에 지렛대 삼아 가로로 쇠파대를 걸쳐 놓고 숯을 꺼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불티가 밤하늘에 폭죽처럼 번쩍였다. 밖으로 끄집어낸 숯덩이는 곧장 재와 모래를 덮어 불기운이 사그라지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일반 가정과 고기집에서 사용하는 '백탄'이고, 숯가마 안에 그대로 둔 채 불기운을 사그라들게 한 것을 '검탄'이라 한다. 가스가 빠지지 않고 화력이 좋아 검탄은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5m 전방까지 뜨거운 열기가 내뿜어져 나왔다. 1,700℃라는 어마어마한 온도를 직접 느껴보지 못했다면 말할 수 없는 열기였다. 그 온도에 겁도 없이 다가갔더니, 아차! 싶었다. 인내심의 한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 열기 속에서 숯장이는 매일 같이 숯을 꺼내는 작업을 한다. 참숯은 한갓 탄소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인내와, 정신력이 피어낸 강렬한 흑백 꽃이었다. 열심히 작업하던 숯장이가 들고 있던 쇠파대를 내려 두면서 말했다. "40분 쉬고 작업할 테니 어디 가서 쉬었다 좀 와요."

숯가마에 들어 있는 숯덩이는 한 번에 빼내지 않는다. 숯 통 하나를 채우고 나면 40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 좋은 숯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스 연소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 가마에서 숯을 빼내는 작업 시간은 족히 7~8시간. 이날 숯을 빼내는 일은 새벽에 시작해 아침나절에나 끝이 났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움직임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여정

끊임없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

산으로 향한다

산을 오른다

나를 느낀다

우리를 느낀다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삶의 주인공

- 대만 기레북봉



사진 | 김성선은 산과 여행에 빠져 사진과 숲해설가 공부를 시작으로 국내 외 오지와 우리나라 해안선을 오토로 일주한 오지탐험가이다. 최근에는 히말라야 오지를 찾아가 어린이에게 학습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행복한 팀원가로 활동 중이다.

맑고 고운이여 시가 되어 주세요

시인 박남준

지리산에 사는 박남준 시인을 만나기 위해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마당에 매소화가 어여쁘게 피었다며 답 메일을 보내왔다. 시 같은 답변이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박남준 시인을 만났다. 소유와 물욕에서 벗어나 실로, 생명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한 송이의 꽃과 같다. 꽃처럼 밝은 미소를 가진 그의 얼굴에 매소화가 피어있는 듯 했다. 그의 꽃송이는 맑고 때 묻지 않으며 시들지 않은 소년의 모습이었다.

홀로 사나 홀로 살지 않는다

“야 심심하다. 너도 심심하지.”

마당에서 튀어나온 작은 돌맹이에게 말을 걸었다. 일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제의 나무가 아니었고, 어제의 꽃이 아니었다. 나무에게 꽃들에게 새들에게 돌맹이에게 그가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박남준 시인은 말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각기 저마다 따로따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그는 홀로 사나 홀로 살지 않는다.

그는 악양 동매마을에 산다. 집을 품고 있는 것은 지리산이고 그 앞으로는 섬진강이 흐른다. 그 사이 넓고 풍요로운 들판에는 곡식이 자란다. 강과 산 그리고 들판이 어우러진 그곳에 박남준 시인이 살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밭에 나가 차 잎을 따고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 위해 손수 만든 차를 대접한다. 그리고 지리산 학교에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 시도 가르친다. 딱새를 벗 삼아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소리를 음악 삼아

농사지으며, 시 지으며 그렇게 산다.

오래전 그는 서울에서 3년 정도 방송 작가로 일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쓰고 싶은 글을 쓰기보다 먹고 살기 위한 글만 쓸 뿐이었다. 시는 써지지 않았고 마음은 황폐해지고 삭막해졌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에 전주문화센터의 관장 자리를 제의받고 전주로 내려갔다. 급히 서울에서 내려간 터라 머물 공간이 없던 그는 후배 집에 머무르며 출퇴근을 했다. 때마침 아는 선배가 산에 무당이 살다가 떠나 빈 집이 된 곳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선배에게 내가 집을 얻을 때까지만 그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선배는 흔쾌히 승낙했고 그 후로 13년 간 그는 모악산에 머물렀다.

“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놀라운 풍경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돈을 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바로 다음날 사표를 냈습니다.”



1. 집 안 가득, 박남준 시인이 꾸며 놓은 소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2. 예쁜 글씨체도 그의 마음을 닮았다. 3. 돌멩이에게 말을 걸고, 딱새 부부에게 눈치 보며 살고 있다는 박남준 시인. 자연과 벗 삼으며,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 나눴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그는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는 본격적인 '산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외롭고 쓸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에게 온 편지를 찾기 위해 그는 하루에 한 번 마을로 내려갔다. 하지만, 편지는커녕 청탁서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생경한 개울물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당 밖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던 '누가 왔나' 하고 밖을 내다본 적도 많았다.

한 번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부터 집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까 설레 발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라도 손님이 왔다가 잠깐 밖에 나갔나 하고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다. "박남준 집에 왔다! 박남준 집에 왔다!" 그는 한참 생각한 끝에 불빛의 정체를 알아냈다. "내가 나갈 때 켜둔 불이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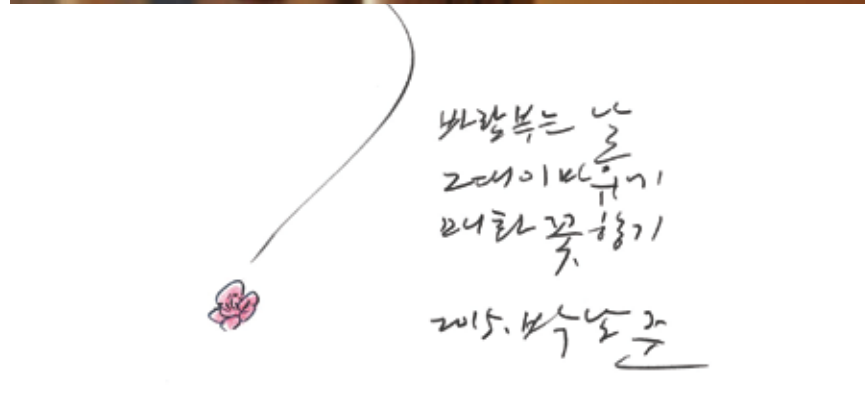
"그래도 산에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먹은 일이었으니까요. 삶이 조금 가난하고 궁핍해졌다고 다시 직장을 다니고 또다시 생활이 넉넉하다고 그만두고, 이런 생활을 반복할 수 없어 마음을 확고하게 먹었죠.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잘 살 수 있겠느냐고.

사실, 힘들고 외로웠지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이곳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다지만, 새와 쥐가 들을까봐 눈물이 나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유배하듯 떠나는 길이었다.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을 슬하하게 견어왔고 이겨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시인으로서 삶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

그로부터 이곳 동매마을로 오기까지, 여전히 혼자이지만 그는 혼자자 아니었다. 자연과 벗 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보다 작은 생명들과 함께 하는 것, 대신 그들을 위해 내가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딱새 가족 눈치 보며 살고 있다고 그가 운을 뚫다.

"딱새부부가 지붕위에 둥지를 틀어서 눈치 보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악양에 왔을 때도 털신에 둥지를 지어 놓은 딱새부부 때문에 눈치 보며 살았어요. 마당에 나가 있으면 '빨리 비켜! 저기로 날아가야 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비켜 주고 '나 거기 네 새끼 있는 거 다 알거든? 둥지에서 나갔다 와도 괜찮거든' 그렇게 타이르면서 살았는데, 또 이곳에 둥지를 틀었네요."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삶

박남준 시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가 정해놓은 수입과 생활비, 통장 잔고의 액수. 그는 한 달에 50만 원을 벌고, 생활비로는 30만 원을 쓰며, 통장에 300만 원을 넘지 않게 한다. 그 외 모든 수입은

후원금으로 보내는 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그의 삶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풍요로웠으며, 나눔이 있기에 따뜻했다.

"삶에 있어서 만족은 가치를 어디에 두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에서 오는 성취, 돈을 가졌을 때 오는 희열은 잠깐의 만족을 주는 수단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행복은 그런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시를 쓰는 한 사람으로서 제 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든 일을 견뎌내고 헤쳐 나갔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위로 받는 기분이지요. 내 삶의 땀방울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 그것이 바로 참다운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박남준 시인은 살고 있다. 내 것이라 여기는 것, 다만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삶, 그것은 최선을 위한 과정

10년 전쯤, 그는 판화가 이철수의 전시회를 찾았다. 전시회를 둘러보던 중 한 작품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 산머루에 겨우 몇 알의 열매가 달려있는 그림 앞에서 었다. 화제는 '최선'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몇 알 되지 않는 열매로 보이겠지만, 머루로서는 최선을 다해 맺은 열매인 것이다. 덕분에 그는 마음 한 칸에 목표 하나를 정했다. 결과가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를 가지고서 삶의 잣대를 비춰보지 않아요. 다만 내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이 정도면 최선이지 않았겠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그는 오랫동안 나무 아래에 서서 떠나는 취재진을 향해 서 있었다. 푸르고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은 따스했으며, 바람이 풍요로웠다. 그리고 그는 한 송이의 꽃처럼 아름다웠다. 시를 짓는 한 남자가 지리산에 살고 있다.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꽃과 산새와 벗삼으며. ☺

Profile

시인 박남준

'돈 쓰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산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박남준 시인. 악양 동매마을에 홀로 외딴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차 밭에 나가 차 잎을 따기도 하고, 텃밭에서 상추, 배추, 토마토, 숙곳 등을 직접 기르며 자연의 한 부분으로 즐겁게 산다.



신록 속 꽃의 빛을 누리다

산수국과 물레나물

산수국

신록이 우거진 숲 속, 보랏빛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산수국의 계절이다. 수국과 달리 산에서 난다하여 '산수국'이라 부른다. 꽃을 보면 바깥으로 큰 큼직한 것이, 중앙에는 작은 것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의 꽃들이 산수국의 '진짜' 꽃이고 바깥은 '가짜' 꽃이다. 즉, 바깥쪽에 핀 꽃은 푸르거나 붉은 흰색을 띠며 곤충을 유인하는 '무성화'이고, 푸른 보라색의 중앙 꽃은 곤충이 옮겨주는 꽃가루받이를 통해 수정을 담당하는 '유성화'이다. 산수국의 참꽃은 곤충을 유인하기에 작고, 수수하기 그지없다. 그렇기에 가짜 꽃을 내세워 곤충을 유인하고 진짜 꽃이 수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대부분의 꽃은 고유의 색깔을 지닌다. 하지만 산수국의 꽃은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 모양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모양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에 따라 드러나는 색상이 다르다. 알칼리 성분이 강하면 분홍빛을, 산성이 강해지면 푸른색이 더욱 진해진다. 그래서인지 꽃말도 '변하기 쉬운 마음'이라고 한다. 숲 속에서 산수국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향기에 흠뻑 취해보자. 산수국의 향기에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산수국의 취향

일본과 중국에서는 산수국 잎으로 만든 차를 마신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내 '갈로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토종 산수국은 단맛이 그보다 덜 난다. 산수국은 심장을 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머리를 맑게 한다.



세상이 신록으로 가득하다. 푸름과 맑음이 온 마음과 몸으로 번지고 채워진다. 신록 속에 조용히 얼굴을 내미는 야생화가 있다. 산수국과 물레나물이다. 숲 속 신록 가운데 새색시처럼 고운 자태를 뽐내는 산수국과 물레나물의 민낯을 엿보자. 빼꼼 내민 그 얼굴, 어쩔 이리 어여쁘지.

물레나물

물레나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꽃의 생김새를 깊이 관찰하지 않아도, 왜 물레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느껴질 것이다. 물레나물의 길쭉한 꽃잎 5장이 마치 바람개비처럼 한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데, 그 생김새가 물레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또 이름이 물레와 함께 '나물'이란 글자가 합쳐져 있어 대략 짐작했을 지도 모르겠다. 물레나물의 어린 순은 살짝 데쳐 행구어 낸 후, 양념하여 무쳐 먹기도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무쳐 먹는 물레나물을 '나물의 왕자'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물레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물레나물은 산기슭의 물가, 논과 밭이 이어지는 양지바른 곳에서 자란다. 어디서나 잘 자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건조하고 메마른 곳보다는 배수가 잘되는 촉촉한 곳을

더 좋아한다.

물레나물을 만나게 되면 그 꽃의 생김새에 주목해 보자. 꽃잎 중앙에 틈이 있는 암술과 붉은색 수술이 많이 있어 물레나물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꽃말은 '일편단심'과 '추억'이다. ☺

물레나물의 취향

씨앗을 뿌린 후 2년 정도면 큰 꽃이 피는 데다, 자라는 곳도 크게 가리지 않는다. 화분에 심을 경우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두고, 물은 하루 간격으로 준다.



똑똑!
숲에 놀러 왔어요

춘천 용화산 자연휴양림

가족이란 무엇일까. 남자와 여자의 첫 만남, 축복과 기대 속에서의 결혼, 첫 번째 아이의 탄생,
첫 아이의 말트임과 걸음마에서 느끼는 행복, 가족의 결실이라는 조중함,
그러한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완성되는 것.

아빠! 어디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5월, 햇살만큼 빛나는 가족이 용화산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대한민국 육군 가족의 용화산 나들이. 6년차 동갑내기 부부 홍성호, 임진희 씨와 그들의 토끼 같은 두 딸 홍슬아, 홍지아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홍성호 씨는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외출하기가 힘들었을 가족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귀띔했다. 꼭 짜여진 업무와 훈련의 일상으로 지칠법하지만 휴식이 주어진 특별한 하루, 가족과 함께라면 어디든 발 벗고 나서보겠다고 준비된 시간이었다.

“휴가 때가 아니면 멀리 나갈 수 없으니, 특별한 외출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래서인지 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주고 있는 제 아내에게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무력무력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 6년차에 접어든 홍성호, 임진희 씨 부부. 대학시절 홍성호 씨는 임진희 씨에게 끈질긴 구애를 펼친 끝에,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지 얼마 안 돼 200km가 넘는 장거리 연애를 2년 동안 했다. 그렇다 보니 서로에게 느끼는 애뜻한 감정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익숙해지고 만남에서 출발한 관계가 영글어가기까지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제법 길 것이다. 홍성호, 임진희 씨 부부도 처음에는 오해로 인한 다툼도 무척 많았다. 하지만 차차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사랑도 깊어져 갔다. 거기에 토끼 같이 귀여운 두 딸은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주었다.

자연 그대로의 기쁨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육군 가족에게 숲은 그림던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이 되돌려 주는 것, 하루 동안이나마 숲을 통해 가족에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 숲은 그 자체만으로 그들 가족에게 훌륭한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용화산 자연휴양림은 춘천과 화천 경계에 위치한 곳이다. 서울에서 자연휴양림까지는 2시간 내외면 도착하기 때문에, 도심과 가까운 휴양림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용화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용화산 자연휴양림은 제법 깊은 산속에 자리한다. 그래서인지, 자연휴양림에 도착하기 전부터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가

1. 숲에서 아이들은 맑고 깨끗한 웃음을 내보였다. 2. 아빠를 안전띠 삼아 경험해보는 생애 첫 인공 암벽 타기. 3. 이날 가족의 웃음은 따뜻한 햇살만큼 빛이 났다.



온몸으로 파고들어왔다. 가족과 함께 숲을 찾은 첫째 딸 슬아는 누구보다 씩씩한 걸음을, 작은 딸 지아는 막 걸기 시작한 걸음을 아장아장 내딛었다. 매표소를 지나, 드디어 용화산 자연휴양림과 만나는 시간. 청량한 나무의 냄새, 흙냄새가 바람에 실려 왔다.

숲으로 향하는 길, 우거진 나무 사이로 “후드득”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나 다람쥐가 아닐까 하고 홍성호 씨는 고개를 돌려 나무 사이를 살폈다. 이내 군인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홍성호 씨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뱀이다!”

갑작스런 뱀의 등장으로 가족들은 오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뱀’은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첫째 딸 슬아는 숲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주춤했지만, “다람쥐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금세 씩씩한 걸음을 다시 내딛었다.

산림욕장을 지나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니, ‘인공 암벽 체험장’이 나왔다. 아이들보다 더 신난 건 아빠. “와, 재밌겠다!” 아이들은 아빠를 안전띠 삼아 인공 암벽을 체험해 보기로 했다. 무덤덤하게 인공 암벽을 잡고 올라가는 작은 딸 지아에 비해, 첫째 딸 슬아는 무섭다며 뒤로 내뺄기 시작했다. 그런 첫째 딸을 아빠는 설득한다. “아빠가 꼭 잡아줄게!”라는 말 한 마디에 첫째 딸 슬아도 씩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아빠의 도움으로 암벽 체험을 시도하는 아이들을 엄마는 흐뭇하게 바라봤다.

숲이 아주 좋은 날

암벽 체험을 마치고 이어진 언덕길을 조금 오르니 숲 산책로가 나왔다. 경사가 급하지 않고, 길이 넓어 아이와 나란히 걷기에도 무리 없었다. 숲 속에서 뛰어 놀던 첫째 딸 슬아는 다람쥐 한 마리를 발견하고 오래도록 서서 지켜봤다. 무심하게 지나칠 법도 하지만, 아이들의 총총한 눈은 자연이 주는 생명체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흡수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는 초록의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이 차곡차곡 쌓여 갔다. 그렇게 홍성호 씨 가족의 하루가 지나고 있었다.

“숲이 우거진 길을 두 팔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막 걸기 시작한 작은 딸 지아가 신이 나서 걸터군요. 첫째 딸 슬아도 숲에 있는 동안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어요. 화창한 날씨, 거기에 시원한 바람까지 술술 불어주니 정말 상쾌한 산책이었습니다. 사실, 훈련을 하면서 산을 많이 오르곤 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날 숲>을 통해 산을 만나니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아내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숲 속의 푸른 빛처럼 어느덧 아이들의 웃음에도 파란 희망이 번졌다. 첫째 딸 슬아가 들고 있던 바람개비가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에 무지개 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 걸으려는 웃음꽃이 저절로 피어났다. 숲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복이었다. ☺

Information

춘천 용화산 자연휴양림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
전화 : 033-243-9261



<magazine 숲>과 함께 ‘숲’으로 떠날 독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서울 안산 자락길

‘어떤 날 숲’은 매 호마다 한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숲으로 갑니다. 07+08월호 주제는 ‘걷기 좋은 숲’입니다. <magazine 숲>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독자는 엽서와 이메일(magazinesup@korea.kr)을 통해 참여 부탁드립니다.





Family Camping

얼마 전, 강화도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생긴 일이 있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캠핑을 즐기려는 가족이 많아지고 있지만, 실상 어떻게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지 무지한 경우가 많다. 어린 자녀와 함께 가족 캠핑을 꿈꾼다면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안전한 캠핑을 위한 '지식'일 것이다. 어린 자녀와 함께 안전하고, 푹푹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캠핑 칼럼니스트 | 강대현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안전 캠핑 노하우



안전 캠핑을 위한 올바른 장비 사용

① 조명 관련 용품

캠핑에서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 독특한 낭만까지 선사한다. 그러나 사용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 또는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고 텐트의 전실이나 타프 아래에 설치한 후 전체를 밝히는 메인 조명은 절대로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기 중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 곧바로 질식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사용 중에 상당한 고열이 발생하니 화재 및 화상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연소 장비는 밀폐된 취침 공간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주 밝은 빛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면 전전지를 이용한 랜턴이 안전하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충전식 LED 랜턴도 메인 조명으로 추천할 만하다.

② 취사 관련 용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는 버너이다.



대부분 캠핑용 버너는 화력 조절 밸브가 가정용 가스레인지와 반대 방향이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화력이 줄어드나 그 반대 방향은 화력이 향상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화력을 조절하다 보면 강한 화염으로 화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을 명심하자. 특히, 액출형 버너는 초기 점화 시에 매우 강한 화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초보자의 경우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고 내용물을 모두 사용한 가스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내어 분리한다.

③ 취침 관련 용품

동계 캠핑은 물론 간절기에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전기장판이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는 필요 장비이나 자칫 잘못 사용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중에 절대로 장판이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절한 온도 설정으로 과열을 미리 방지한다. 특히, 일부 수입 저가 제품의 경우에 과열 방지 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위험하니 반드시 전기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또한, 공기를 주입하는 캠핑용 매트 사용 하는 경우 전기장판을 매트 위가 아닌 바닥 쪽에 설치하면 매트가 영구 손상될 수 있다.

④ 화로대 사용

캠핑 관련 안전사고 가운데 매년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화로대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화로대를 이용해 불놀이나 바비큐를 즐긴 후 난방을 위해 텐트 내에 들여놓고 취침하여 발생하는 사망 사고이다. 앞서 조명 용품에서 설명한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의 연소는 곧바로 산소 결핍으로 이어지고 이는 질식 사고로 이어진다. 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매우 위험하며, 사망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백번을 조심해도 부족하지 않음을 명심하자.

자녀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온 가족이 자연으로 떠난 즐거운 캠핑에서 자그마한 사고라도 생긴다면 이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캠핑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고 미리 주의하여 보자. 캠핑장은 많은 텐트와 타프가 설치된 장소이며, 이 때문에 수많은 스트링(줄)이 설치되어 있다. 아이들이 이를 무시한 채 무심코 뛰다 보면 스트링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곧바로 찰과상으로 이어진다. 더한 경우 바닥에 설치된 펙(못)에 얼굴이라도 부딪히면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텐트 주변에서 절대 뛰어놀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한 놀이 공간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야간에는 스트링이 보이도록 안전 조명을 설치하고 휴지나 비닐봉지 등을 묶어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뜻밖에도 해먹에서 많이 발생한다. 해먹은 캠핑의 즐거움과 낭만 가운데 하나이나, 어린이들은 본래의 용도인 휴식을 넘어 마치 놀이공원의 기구인 것처럼 이용한다. 하지만 과도한 장난은 곧바로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먹은 어른들이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가시거리에 설치하고 바닥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엠보싱이 있는 발포매트 등을 깔아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한다. 아이들에게 자연은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놀이터이며, 살아 있는 교육 환경이지만 이를 자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생소하고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탈면 같은 위험한 장소는 접근을 피하도록 하고 규정된 놀이 장소가 아니라면 반드시 부모가 동행해야 한다. 또한, 고르지 않은 바닥을 고려해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화나 등산화 착용하도록 한다. 간편함을 이유로 슬리퍼 등을 신기는 것은 발목 부상의 주요 원인이다.

올해는 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다고 한다. 캠핑으로 계곡이나 강을 찾는 것처럼 훌륭한 피서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피서지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이 먼저이다. 익숙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는 절대 금물이며, 구명조끼는 반드시 챙겨 가야 한다. 가족의 안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기 때문이다. ☹

Profile

강대현 캠핑 칼럼니스트
네이버 캠핑 파워 블로그 '차칸늑대의 마주 보는 여행'(http://blog.naver.com/wowday3435)을 운영한다. 국제 캠핑 페어, 코리아 아웃도어쇼, 현대백화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초보자를 위한 캠핑 입문 가이드'를 강연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올 여름 캠핑(도서출판 그리고 책)'이 있다.

Safety Camping



1.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조명은 각별한 안전을 요한다. 2. 캠핑장에는 많은 텐트와 타프가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수많은 스트링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이 텐트 주변으로 뛰어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3. 해먹은 어른들의 가시거리에 설치하며, 발포매트를 깔아주도록 한다. 4. 물놀이에서 중요한 건 구명조끼이다.



탄탄한 기초 세우기 집의 틀짜기, 벽체 세우기, 외벽-내벽 세우기

이상목 빌더의 목조주택 짓는 이야기 ③

자, 이제는 본격적인 목조주택의 시공 과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제부터 무언가가 대지 위에 표현되기 시작하고, 눈에는 어렵듯이 완성된 목조주택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기초 공사부터 목조주택의 골조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지의 형태와 위치에 따른 기초의 선택

토목 도면이 택지의 정확한 높이와 경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토목 도면은 현장의 대지 상태와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택지가 평면, 좋은 토질,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어 지하 침하 우려가 없다면 도면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절토지반이나 성토지반은 침하에 대비한 기초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

기초의 자세한 분류는 지정의 형식과 기초 판의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나, 일반적인 목조주택의 경우 크게 ①직접 기초형식의 독립 기초, ②연속기초(줄기초), ③온통기초(매트기초)를 주로 사용한다.

예전에는 대부분 연속기초 시공이 많이 이뤄졌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1층 바닥 높이를 대지의 지면과 30~50cm 정도로 하고, 마당에서 실내로 이어지는 유선의 높낮이를 많이 주지 않는 온통기초로 이루어진다. 온통기초의 경우 공정 기간이 짧고 시공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조주택의 하중은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에 비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기초공사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다. 지반의 부동침하¹⁾와 지반침하²⁾로 인한 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초의 지정과 구조 형태가 시공돼야 한다.

1) 목조주택의 틀짜기 첫 번째 : 토대 시공

기초 형태에 따라 틀짜는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비슷하다. 따라서 주택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초 공사 방법인 매트기초에서 시공되는 틀짜기로 설명해 보겠다.

양생(養生)³⁾이 이루어진 기초에 실제 치수대로 먹을 놓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 기초가 정확한 치수로 시공되어있지 않으면 애로 사항이 많아지며, 필요 없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필자는 항상 기초 공사 시 직접 규준틀을 점검하며, 특히 콘크리트 타설 전 기초 레벨(기초상단 높이)은 1cm이상의 오차를 주지 않기 위해 형틀목공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먹을 놓는다는 의미는 기초 위에 실제 만들어질 1층 평면도를 투사해 그리는 작업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이 잘못 놓아지면 실제 도면과 다른 평면이 시공된다. 먹을 놓고 나면 벽체 중심선에 앵커볼트를 시공한다. 이때 앵커볼트는 12mm 이상 직경을 가진 볼트를 와서와 너트로 고정한다. 토대는 인사이징처리(방부 목재에 칼침을 주어 방부 약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된 방부 목을 사용한다. 이때 방부목에 썰실러(내벽용 방습지)를 붙여 콘크리트 기초의 수분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2) 목조주택의 틀짜기 두 번째 : 벽체 제작

벽체 제작은 기초 위에 놓인 먹선을 기준으로 제작된다. 벽체 제작에 사용될 밑갈도리⁴⁾와 윗갈도리⁵⁾ 부재 두 개를 겹쳐 붙인 후, 벽체의 길이에 맞게 재단해 1층 바닥 전체에 교차되게 위치시킨다. 이는 토대와 교차하도록 하고, 부재의 절단된 면이 같은 곳에 위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팀장급의 일원이 일종의 벽체 제작에 관한 조립도면을 그리게 된다. 나머지 팀원들은 그려진 기호에

따라 약속된 방식으로 부재를 조립하면 벽체가 완성된다. 이때 일명 '잘순'이라 불리는 팀원(골조제작에 필요한 목재를 재단해서 공급해주는 사람)이 벽체 제작에 필요한 모든 치수의 목재를 잘라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2명씩 팀을 이뤄 벽체를 제작한다. 이때 팀원 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시공의 품질을 좌우하며, 시공 속도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나무를 만지는 사람은 '대부분 선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왜일까? 스틸 프레임이나 조립식 주택을 작업하던 기술자들이 날카로운 쇠소리와 유해 환경이 많은 현장과 일이 싫어 목조주택 현장으로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마 자연의 산물인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는다는 것이 그만큼 작업하는 빌더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툽밥이 날려 눈에 들어가도 금방 눈물과 함께 빠져 나오고, 툽밥 먼지가 코와 입속에 가득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종일 툽밥먼지 뒤집어쓰고 작업해도 에어(Air)로 훌훌 털면 그만인 작업현장은 다른 형태의 주택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환경 현장'일 것이다.

3) 목조주택의 틀짜기 세 번째 : 지붕 골조 공사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모든 벽체의 수직과 수평을 잡는다.

이 공정에서는 다림추[®]를 이용해 밑도리와 윗도리의 위치, 스티드의 수직 관계를 검사하고 조정한다. 다림추 대신 정밀도가 높은 수평대를 사용하면 조금은 빠르게 벽체의 수직을 조정할 수 있다.

서까래의 제작은 팀장이 주로 한다. 지붕의 모양과 경사도에 따라 정밀한 계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때 손쉽게 피트와 인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 용 계산기를 사용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목조주택 용 계산기 어플이 있어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나 역시 스마트폰 어플을 애용하고 있다.

지붕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주로 박공지붕과 모임지붕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지붕작업은 생각만큼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서까래가 모두 조립되면 벽체와 지붕에 OSB합판을 시공한다. 보통 조립된 목조주택의 골조가 비에 맞아 나무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붕 합판을 시공하고, 다음 공정으로 방수시트의 시공이 이뤄진다.

지붕방수 시트와 외벽합판 시공 후 외벽체에 타이벡(외벽용 방습지)을 시공한다. 기밀막의 시공과 증기지연재의 설치 목조주택 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시공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호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4) 목조주택의 틀짜기 네 번째 : 틀짜기의 완성 후 이후 공정의 중요성

중요한 골조 공사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도록 감싸는 작업이다. 목조주택 짓기 과정에서 이때가 가장 아름답고 멋스럽다. 토대작업부터

시작하여 지붕 서까래 작업까지 나무로만 이뤄져서 일까. 멀리서 보면 마치 미니어처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목조주택을 이루고 있는 부재가 잘 짜 맞춰진 퍼즐처럼 어울릴 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낀다.

마감 공정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나, 골조 작업은 이른바 'FM(field manual)'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린다. 골조 제작은 공식이고 규정이며, 기준이다. 나무의 크기는 건축 구조 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규정된 조립 방법과 치수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자가 없고 자연재해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목조주택이 된다.

이를 무시하고 모양만 목조주택인 엉터리 골조가 짜이면, 여름에는 장마로 인한 수분의 침투,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한 벽체 내부의 결로 현상 등에 의해 나무가 썩어 구조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정밀한 시공이 꼭 필요하다.

목조주택은 단순히 예쁘게 집을 짓는다고보다 '어떻게 하면 100년 동안 하자 없는 집으로 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라 표현하고 싶다. 목조주택의 보이지 않는 숨은 기능에 더 관심을 두고 짓는다면, 괜찮은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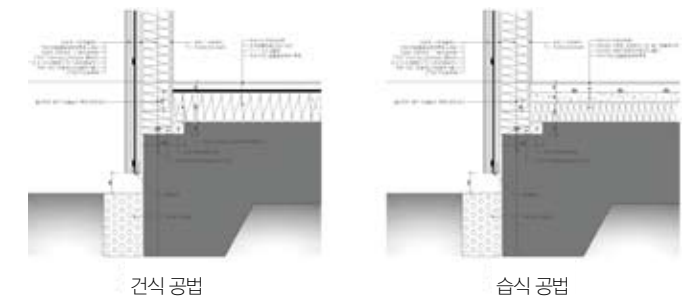
이상목 빌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바로 다음날 통나무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가족과 고향인 함양으로 '귀산'하고 직접 통나무 주택을 지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입업후계자, 목조주택 빌더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 살면서 목조건축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고 말한다.



1. 개구부 윗부분의 보강부재인 헤더. 개구부를 하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1층 벽체 조립. 벽체 제작은 기초 위에 놓인 벽선을 기준으로 제작한다. 3. 지붕 합판을 시공 중이다.

목조 기초 부분 상세도



용어설명

- 부동침하 : 하나의 건축물의 기초에서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정도의 침하가 이루어지는 현상.
- 지반침하 : 겨울철 바깥 공기에 노출된 기초의 지장이 동결되면서 생기는 현상.
- 양생 :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 밑깔도리 : 벽에서 스티드(stud) 아래에 스티드와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는 부재.
- 윗깔도리 : 벽에서 스티드 위에 이와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는 부재.
- 다림추 : 실끝에 원뿔 모양의 무게 0.2~1kg 정도의 추를 매단 것.

파란 하늘 아래 나물 예찬

들에서 산에서 채취하는 나물은 때가 되면 알아서 찾아오는 밥상 위의 반가운 손님이다. 조물조물 손맛으로 무쳐내는 나물 반찬 대신 명이나물로 수육을 싸 먹고, 곰취나물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자. 소박하게 변신한 나물들이 입 안 가득 충만함으로 변질 것이다.

요리&스타일링 | 김보선
어시스트 | 박재원



향긋한 곰취에 담백한 수육 한 입

곰취 쌈장 무침을 곁들인 수육

재료

- 돼지고기(수육용 앞다릿살) 500g, 곰취 500g, 포도씨유 약간
- 수육 삶는 재료 - 된장 2큰술, 대파 2/3대, 마늘 5톨, 통후추 1작은술, 청주 5큰술
- 쌈장 양념 - 된장, 들깨(갈아서 준비), 들기름, 다진 마늘 2큰술씩, 고추장 1+1/2큰술, 매실청 2작은술

만들기

- 1 냄비에 돼지고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된장을 푼 뒤, 큼직하게 썬 대파와 마늘, 통후추를 넣고 끓인다.
- 2 1이 팔팔 끓으면 고기를 넣고 청주를 부어 삶는다.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20~25분간 익힌다.
- 3 2의 불을 끈 뒤 그대로 10~15분간 둔 다음 꺼내어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겉면을 센 불에서 소금을 뿌려가며 노릇하게 굽는다.
- 4 3이 한김 식으면 도톰하게 썬다.
- 5 곰취는 끓는 물에 넣고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고 큼직하게 썬다. 분량의 쌈장 양념 재료를 넣고 가볍게 무쳐 4의 수육고기와 함께 곁들여 낸다. 🍴

달짝지근한 명이나물 샌드위치 한 입

명이나물과 버섯볶음을 올린 핫치즈 샌드위치

재료

- 명이나물 100g, 표고버섯 3장, 양송이버섯 3개, 베이컨 2장, 치아바타 2개, 치즈(고다치즈 또는 까망베르 치즈) 적당량,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약간씩

만들기

- 1 명이나물은 큼직하게 썰고, 버섯과 치즈는 슬라이스 한다. 치아바타는 반 가른다.
- 2 달군 팬에 베이컨을 넣고 노릇하게 구워 꺼낸다.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명이나물과 버섯을 넣어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볶는다.
- 3 치아바타에 치즈를 얹고, 그 위에 베이컨과 2를 얹는다.
- 4 나머지 빵으로 3을 덮고 뜨겁게 달군 그릴팬에 굽거나 오븐에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구워 완성한다. 🍴





소년 소녀의 아름다움이여 숲에서 빛나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청소년기>

현재 청소년은 숲과 단절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숲과 동떨어진 교실, 나무가 없는 놀이 공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만 이루어진 거리.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간인 청소년기에, 숲이 없는 공간에서만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숲은 청소년기에 배출되는 건강한 에너지를 순수한 방향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소년기의 우리 아이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숲체험에 대해 알아보자.



'인생학교, 숲'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6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숲을 통해 배우는 인격과 자아 형성

청소년기는 어떤 생애 주기보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순수하게 에너지를 표출하기란, 현재의 학교 시스템으로는 무척이나 제한적이다. 마치 아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만 적응하고, 학교를 통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의 청소년은 과거의 청소년보다 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다. 인터넷과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될 기회도 많아졌다. 이는 자연과 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젠부턴가 우리 아이들은 자연에서 놀기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친구 삼아 혼자 놀기 시작했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의 청소년기는, 청소년의 순수한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숲과 함께 어울리며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1. 산림교육센터

산림청은 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위한 산림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한다.

● 역할

- ①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 교육
- ② 산림 교육에 대한 교재 및 프로그램 보급
- ③ 학교 내 산림 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 ④ 그 밖의 산림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01. 숲체원(지정 1호)

프로그램	주요 대상	소요 시간	교육 시기
진로 탐색 프로그램	청소년, 가족	1.5	연중
전통 美 한지 보석함	청소년	2.5	연중
숲 밧줄 놀이	청소년	2	연중
숲 공동체 놀이	청소년	2	연중
자연 화분 만들기	일반	1.5	연중

02. 천리포수목원(지정 2호)

프로그램	주요 대상	소요 시간	교육 시기
숲 치유 교육 캠프	청소년	12	연중
숲 체험 활동	청소년	4	연중
무궁화 데이트	교사	1	8월
해설사와 함께 나무 찾아 떠나는 수목원 여행	일반	2	연중
세밀화 양성 과정	일반	36	연중

2. 숲사랑 소년단

숲사랑 소년단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숲 지킴이이다. 현재 산림청과 사단법인 숲사랑 소년단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숲 가꾸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숲사랑 소년단의 선발은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단법인 숲사랑 소년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숲사랑 소년단의 목표

- 봉사하기 : 숲에 봉사하는 태도
- 알기 : 숲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지식 습득
- 감사하기 : 숲에 감사하는 마음
- 만들기 : 숲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감

운영프로그램

- 식목일 나무 심기 : 매년 나무심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그린레인저 전국대회: 매년 전국 대원들이 한 곳에 모여 청소년 숲 지킴이로서 리더십을 키운다.
- 산림학교 : 강원도 횡성 숲체원에서는 그린레인저를 위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 청소년이 느낀 숲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며, 그 안에서 숲의 가치를 발견한다.

1.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레포트 체험. 2. 숲에서 자라는 생명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3. 숲에서 이루어지는 자아성찰 프로그램. 숲을 통해 아이들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협동하는 방법도 배운다.



FOREST PROGRAM

2015년 숲사랑 소년단 프로그램 운영 계획

프로그램명	시기	장소	참여 인원	주요 내용
전국대회	8월 중(2박 3일)	청태산휴양림 등	300명	· 우수 활동 시상 · 봉사, 리더십 프로그램
산림학교	8월 중(2박 3일)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	600명 (150명*4회)	· 산림체험 교육
숲 리더	5~11월	홍릉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240명 (30명*8회)	· 숲의 소중함,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함
전국 청소년 숲 사랑 작품 공모전	10월 중 (우편 공모 포함)	홍릉수목원 등	2,000명	· 숲의 소중함을 그림, 글, 동영상 등으로 표현
학교별 숲 속 교실	4~11월	학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1,500명 (30명*50회)	· 대상 학교 선정 후 차량, 교재, 강사 등 지원
학교 폭력 예방 숲 사랑 학교	4~11월	숲체원 등	540명 (135명*4회)	· 소외계층, 일반 청소년 대상
어울림 숲 속 캠프	2~12월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	240명 (120명*2회)	· 다문화, 장애인, 청소년 힐링 및 리더십 함양
사랑의 딸감 나누어 주기	11월	전국대회	100명 (50명*2회)	· 나무 딸감을 수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
한그루봉사단 운영	1~12월	전국대회	100명	·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너와 나 우리의 숲

숲사랑 소년단은 청소년이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은 숲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숲에 사는 생명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숲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협동심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청소년의 건강한 에너지는 숲이 주는 자연의 풍요로움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때 비로소 표출된다.



숲사랑 소년단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Art Therapy

당신의 찬란한 빛을 담아보세요

따뜻한 바람이 영글어 가는 계절, 자연이 초록의 옷을 입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 찬란한 빛은 어떤 색으로 채워졌나요?
당신의 미래가 신록의 초록처럼 푸르기를, 당신의 행복이 눈부신 노랑처럼 찬란하기를,
당신의 모든 기쁨이 아트테라피를 따라 '하하 호호'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꿈을 색으로 담아보세요.



아트테라피의 선을 따라 당신만의 서석지를 담아보세요.

광해군 5년(1613), 정영방(石門 鄭榮邦, 1577~1650)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연못과 정자입니다. 경북 영양에 있는 서석지는 정자인 경정(敬亭)과 매화,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심어 놓은 사우단(四友壇), 한 가지 뜻을 받드는 서재인 주일재(主一齋), 물속으로 30개, 수면으로 드러난 60개 등 90개의 돌로 채워진 연당(蓮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호 여섯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시골 마을을 여행할 때 많이 마주했던 느티나무는, 친근하고 익숙한 나무입니다.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을 통해 느티나무가 주는 삶의 여유와 운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지 않아도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고향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송구(서울 성북구)



요즘 DIY가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낯설지가 않습니다. 나무를 이용해 멋지게 다락을 만들 수 있다니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라 서툴고 어렵겠지만 한 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작은 창상을 완성해서 가족과 함께 차 한 잔 하면 좋겠죠? 김유진(경기 오산시)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조웅래 화장의 이야기가 재미 있었습니다. '황톳길을 통해 사람과 자연을 잇게 하고 문화와 사람을 이어준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숲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숲의 소중함,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현(강릉시 입암로)



'그와 그녀의 특별한 하루' 내용이 좋았어요. 제 고향이 목표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과 손잡고 처음 놀러 갔던 곳이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행복한 유년의 기억이 떠올라 글을 읽으면서 훈훈한 고향의 정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영애(서울 영등포구)



'전기 없는 휴양림 미니멀 하게 즐긴다'를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자연을 찾아 떠나는 캠핑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불편하던 이유로 전기나 편의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만 떠났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캠핑의 목적은 자연과 함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미경(경기 평택시)



숲에서 놀고 먹고 뛰놀며, 다양한 학습까지 경험한다니!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예전에 조카들과 함께 가까운 수락산에 올라갔었는데 나뭇잎 하나 별레 한 마리에도 웃고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아숲체험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권성경(경기 의정부시)



당신의 '힐링'을 걸기로 시작해 보세요! 지리산둘레길

지리산둘레길 프로그램 알아볼까요?

<p>상시 길동무</p> <p>걷기명상, 행복한 발걸음 등 이용객들과 안내인의 자발적 프로그램</p>	<p>매주 토요일 토요 걷기</p> <p>지리산둘레길을 한바퀴 완주할 수 있는 장거리 도보걷기 프로그램</p>	<p>매월 마지막주 금, 토 마을순례</p> <p>마을을 순례하며 마을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1박2일 프로그램</p>	<p>매년 5월 둘레길 이음단</p> <p>15박 16일 지리산둘레길을 한바퀴(274km) 걷는 프로그램</p>	<p>매년 10월 둘레길 걷기축제</p> <p>도보여행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을 축제</p>
--	---	--	--	--

둘레길, 이래서 좋아요!

자료: 지리산둘레길 이음단 만족도 조사 보고서(2012) · 기준: 5점 만점



둘레길, 몇 명이나 다녀갔을까요?



둘레길로 지역경제가 웃어요!

(기준: 2014년도 총 방문자수)

